

중국

미디어산업 민간 개방

중국이 미디어 산업을 민간에 개방, 상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향후 5년 동안 신문과 잡지, 라디오, TV 등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디어 산업의 지배적인 지분은 정부가 보유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같은 미디어 산업 개혁 방안은 인쇄 및 전자매체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디어 산업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새로운 엔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듯판 · 고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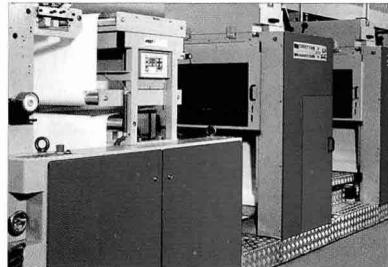
잉크젯인쇄시스템 개발

일본의 듯판(凸版)인쇄와 고모리(小森)코포레이션은 최근 오프셋인쇄와 비슷한 품질을 가진 불량률이 거의 없는 고품질 잉크젯인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인쇄시스템은 용지 반송관련은 고모리 코포레이션이 담당하고 잉크젯 인쇄부는 듯판인쇄가 개발해 품질 및 정밀도에서 오프셋 인쇄와 동등한 높은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잉크젯 인자법을 이용한 이 인쇄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잉크젯잉크를 수상(受像), 고착시키는 수상층을 형성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쇄가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오프셋인쇄와 비교해 품질이 떨어져 오프셋인쇄 대체시스템으로서는 부족함이 있었다.

판촉물로서 자주 이용되는 회사명이 들어간 캘린더의 경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미리 오프셋인쇄를 하고 회사명이 들어가는 부분만을 잉크젯으로 나중에 인쇄하는데 회사명이 들어가는 부분에 수상 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본문 인쇄부와의 일체감이 떨어져 품질, 가격 모두 만족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이 인쇄시스템은 특수한 UV 경화형 잉크와 전용 고정헤드를 조합시켜 범용

인쇄용지에 분당 25m의 속도로 직접 인쇄를 할 수 있으며, 오프셋인쇄와 비슷한 품질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소롯트 인쇄가 가능해 카탈로그나 캘린더, 패키지, 광고 분야 등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쇄시스템은 올 10월 듯판인쇄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해보고 나서 2005년부터 판매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 인쇄가 가능한 물러마티니의 윤전기 물러마티니A68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CCN은 미국 내 유수의 종합 언론 그룹인 트리뷴컴퍼니의 100% 자회사로서, 2002년에 건립한 32만5천평방피트 규모의 생산 센터에 8개 유닛의 기계를 설치하게 됐다. 이 새로운 A68은 오는 3월16일, 물러마티니와 많은 인쇄후가공과 삽입 시스템의 CCN 운영작업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물러마티니 자회사 GMA에 의해 공동 개최되는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CCN에 설치된 물러마티니A68은 스플라이서, 인라인 피니싱 장치를 장착함은 물론 완전 인쇄 자동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라인 작업으로 롤에서 매엽으로의 절단작업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 고품질의 다색 인쇄물의 위해 디자인된 이 윤전기는 생산속도가 분당 최대 1200피트이다. 이 제품은 유연성이 높아 다양한 크기의 실린더를 장착할 수 있어 CCN제품의 다양한 생산에 잘 맞는다. CCN은 트리뷴의 자회사인 로스앤젤리스타임스의 일간과 일요일판의 삽입 프리프린트 광고에도 이A68 인쇄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CCN은 매주 DM물량으로 350만부 이상의 타임즈를 생산하고 있으며 타임즈의 한부서인 타임즈커뮤니티뉴스페이퍼에서 출판되는 7개 신문의 부동산 및 자동차 섹션을 인쇄한다.

CIP4 · GATF

생산 인증 프로그램 개발

CIP4기구와 미국의 그래픽아트기술연합회(이하 GATF)는 최근 JDF 응용 테스팅, 제품 테스팅과 인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한 협정에 사인했다. 5년 기한의 협정에 따라 GATF는 CIP4 작업그룹과 협력함으로써 인쇄, 프리프레스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장비의 다른 분류들을 위한 인증 테스팅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일하게 된다.

CIP4 회원들은 JDF 작업이 요구되는 장치 각각의 분류들을 정확히 특성화하는 상호 적용 명세서(ICS)를 개발하고 있다. 일단 발효되면, ICS 문서들은 GATF에 의해 인증 실험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CIP4는 북아메리카에서 독점적인 계약으로 첫 인증 실험 시설을 만드는 것에 사인했다. 또한 차후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이런 시설이 부가될 것으로 예상, GATF가 선두 시설의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JDF 인증 프로그램이 가동단계에 들어가면, 사용자들은 JDF 인증품이란 로고가 새겨진 제품을 보게될 것이다. 이 인증은 특별 ICS 문서작업과 장치 분류작업으로 구분된다. ICS 문서들은 초고 형태로 만들어진 상태이며 현재는 CIP4 회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으나 일단 발효되면 일반 사람들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CCN

물러마티니 윤전기 설치

미국 내 가장 크고 기술력이 발달한 인쇄, 삽입, 유통 시설업체 중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커뮤니티뉴스(CCN)가 최근 다양한 사이즈

하이델베르그 아프가니스탄

에 교육센터 설립

인쇄 관련 토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하이델베르그는 지난 1월 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교육센터를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교육센터는 교육 과정을 위해 300sqm의 공간에 기계적인 워크숍과 융접장소, 세공선반과 다양한 인쇄기와 후가공 기계의 교육을 위한 공간 등을 마련했다. 또

한 프리프레스 교육 역시 가능하게 했으며, 기본 교육과정은 6개월 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최대 16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하이델베르그는 아프가니스탄 내에 자체 지역 조직을 통해 인쇄 매체 산업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는 최초의 제조사가 됐다. 카불 교육센터는 하이델베르그 아프가니스탄 영업사무소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무소는 작년 4월에 세워졌다. 현재 회사는 2명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하이델베르그 동유럽 비엔나 회사에 소속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회사의 임무는 지속돼 온 전쟁 후에 국가 재건에 도움을 주고 인쇄기(당분간은 중고가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와 인쇄재료의 영업을 활성화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다. 프리프레스 장비는 이미 첫번째 주문이 이뤄진 상태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인쇄매체 산업은 오랜 기간동안 전쟁으로 인해 미숙한 상태이다. 다른 나라의 60년대 수준으로 인쇄사는 인쇄기 작동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건시기에는 인쇄된 정보들이 많이 필요 한 시기로 학교의 교과서 등을 들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한 시장은 기술자와 좋은 품질의 기계도 필요한 상황으로 인쇄물을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생산은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그파&티엠 잉크젯디지털인쇄기 개발

아그파와 티엠(Thiem)은 지난 2월11일 스크린 인쇄 응용을 위한 평판 디지털 프레스를 합작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대 인쇄시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빠른 속도와 높은 품질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잉크젯 기술을 도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파의 이미징 솔루션 담당 잔 반 델레(Jan Van Daele) 부사장은 “아그파의 이미징 및 잉크젯에 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과 프리프레스 솔루션들이 스크린 인쇄 시장에서 티엠이 갖고 있는 시장 및 기술적인 리더십과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라며 “새로운 시스템은 높은 품질을 실현할 것으로 스크린 인쇄 응용을 위한 잉크젯 기

술로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티엠의 디지털 프린팅 시스템 담당 프로덕트 매니저 콘라드 보스틴(Konrad Vossteen)은 “스크린 인쇄 시장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징 기술은 스크린 프린터를 위해 부가적인 수익을 생성하는 리얼-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며 “아그파와의 협정은 스크린 인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위대한 약속이다”고 말했다.

아그파와 티엠은 이 기술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페스파(Fesfa) 2005’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아그파는 지난 1월 벨기에의 산업 응용 디지털 컬러 프린팅 솔루션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도트릭스NV를 인수한 바 있다. 도트릭스NV의 인수와 티엠과의 합작은 인쇄 산업, 특히 최신 잉크젯 시스템에서의 아그파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세프파 시스템으로써 지켜온 디지털 컬러 교정과 라이지-포맷 디지털 인쇄 시장에서의 아그파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크레오 스리랑카에 최초로 CTP 공급



세계적으로 CTP의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에서는 제닝스 프린트케어 랑카 리미티드가 국내 최초로 CTP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크레오아시아퍼시픽 본사에 따르면 영국의 제닝스 DAR사와 스리랑카의 프린트케어(Ceylon)가 합작하여 새롭게 설립한 제닝스 프린트케어 랑카 리미티드가 크레오의 트렌드세터 800 II 퀸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켈라나야에 위치하고 있는 제닝스 프린트케어 랑카는 현재 숙련된 2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디자인, 아트워크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처음으로 CTP 출력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해당 분

야의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당사는 스리랑카 시장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최첨단 솔루션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료비 디지털 워크플로우 '료비 스마트넷' 개발

일본의 인쇄기 메이커인 료비와 료비이마직스는 최근 인쇄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워크플로우시스템 '료비 스마트넷'을 개발, 발매한다고 밝혔다. 포스트프레스 기기의 종합메이커인 호리즌과의 제휴에 의해 프리프레스로부터 프레스까지의 시스템을 확장, 포스트프레스까지의 모든 공정이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되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했다. 이번 제휴에 의해 '료비 스마트넷'이 보다 충실히 사용자들의 요구에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이 디지털 워크플로우시스템에 호리즌사의 포스트프레스 기기를 추가해 제휴시키는 것으로 시스템의 충실함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료비는 이번 제휴에 앞서 페이지 레이아웃 소프트웨어 '료비 EP-X'를 비롯한 편집 기기로 제작·편집된 데이터 또는 터잡기 처리를 할 때에 포스트프레스에서 활용되는 접지나 재단 등의 데이터를 CIP4/PPF 데이터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이는 제판 및 후가공 CIP4/PPF 데이터를 호리즌사의 i2i시스템에 건네주는 것으로 포스트프레스 기기의 자동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i2i시스템은 CIP3/CIP4에서 제작하는 것을 바탕으로 판화작성자로부터 최후에 책을 손에 넣는 고객까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 한사람 한사람에 필요한 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호리즌 독자의 네트워크플로우 시스템으로 앞 공정에서 만든 포스트프레스 공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CIP3/CIP4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접수, i2i 컨트롤 서버에서 데이터 관리를 한다. 이 서버는 접지기, 재단기, 제본기 등에 연결된 각각의 컴퓨터에 데이터를 배분해 송신, 각각의 컴퓨터는 접수된 데이터에 의해 각 포스트프레스 기기를 자동 설정하는 등의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다.

도요잉크 색각 장애자 위한 색수정 기술 개발

일본의 도요(東洋)잉크제조는 최근 도요바시(豊橋)기술과학대학 정보공학계 中内茂樹 조교수와 공동으로 색각(色覺) 장애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컬러 디자인을 자동 수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의 검증실험 결과, 기존의 색각 장애자가 식별이 곤란한 배색으로 구성되어 있던 컬러 디자인을 자동적으로 빠르게 식별이 용이한 배색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기술은 디자인이나 공공표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색각 장애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배색을 자동적으로 검출해 색 수정 알고리즘에 따라 색 수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색각 장애자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컬러 디자인의 배색을 변환할 수가 있다. 또한 가능한 한 원래의 컬러 벌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한 자동적으로 색 수정을 실행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요잉크제조는 이 기술에 의해 '색채 커뮤니케이션의 배리어블화'를 실현해 '유니버설디자인'이나 '색채 커뮤니케이션'의 분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갤루스 플렉소 인쇄기 중국에서 오픈하우스



지난 1월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쉰천에서 열린 하이델베르그의 프린트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100명 이상의 고객이 참관하는 성황을 이뤘다. 2004년 첫번째 마케팅 행사로 열린 이 프린트미디어 아카데미는 갤루스 플렉소 인쇄기 오픈하우스로 실시돼 대부분의 참관객들이 라벨과 포장인쇄 분야에서 생산이나 경영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급이 참관,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양일간에 걸쳐 펼쳐진 오픈하우스 기간동

안 '포장인쇄'와 '라벨인쇄'라는 다른 두 가지 주제로 인쇄시연회를 선보였다. 인쇄 작업으로는 담배포장과 맥주병의 라벨인쇄를 선보였으며 참관객들에게 플렉소 인쇄기술을 통해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또한 생산의 유연성을 통해 어떻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 주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한편 이번 오픈하우스의 주역인 갤루스 EM510은 1999년 중국 고객에게 처음으로 소개되어, 2003년 12월에 상하이에서 열렸던 라벨엑스포 등을 통해 그 브랜드 인지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이 전시회를 통해 하이델베르그 중국지사는 라벨인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모델 EM280 내로우 웹 인쇄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QuarkXPress6.1 업데이트판 출시

Quark사는 지난 2월11일 맥 OS X v10.3 '파트너'를 지원하고 많은 작업능력이 개선된 QuarkXPress6.1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QuarkXPress6.1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의 보다 향상된 통합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에 사용자는 엑셀 워크북에서 텍스트, 사진, 차트 데이터를 직접 QuarkXPress6.1로 가져올 수 있다. 또한 QuarkXPress6.1을 통하여 하이퍼링크 데이터는 스프레트쉬트에서 전체적인 스프레트쉬트나 광범위한 셀 작업을 할 수 있다.

맥 OS 사용자들은 에디트 오리지널 엑스텐션(Edit Original XTensions) 모듈을 통해서도 새로운 편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사진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에는 이미지 편집 응용에서도 편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 에디트 오리지널은 맥 OS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QuarkXPress 패트포트 6.1은 맥 OS X v10.2 '재규어'가 필요하다. 또한 윈도우 플랫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2000 또는 윈도우 XP 이상의 사양을 요구한다.

한편, QuarkXPress6의 고객은 QuarkXPress6.1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제록스 오피스·그래픽-아트 시스템

5개 산업상 수상

제록스 코파레이션의 '임프레시브(impressive)' 오피스와 그래픽-아트 시스템은 사무실 이미징 선도 장비 부문에서 소비자 구매 평가 그룹 베터바이포비즈니스(Better Buys for Business)로부터 5개의 비즈니스 구매 편집상을 수상했다. 수상이 결정된 제록스 카피센터(CopyCenter)TM 복사기, 워크센터 프로(WorkCenter Pro)는 다기능 시스템들을 향상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된 것이다. 다큐컬러 복사기/프린터와 페이저 프린터들은 사무실 작업 그룹에서부터 그래픽 디자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걸쳐 탁월한 작업능력과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왔다. 이번에 받게 될 산업상은 '2004 컬러 복사기 구매자 가이드'와 '2004 사무실 레이저 프린트 가이드'에 공표될 예정이다.

베터바이포비즈니스의 조나돈 비스(Jonathon Bees) 편집인은 "이 제품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높은 운영비용에 관한 문제와 적용성, 인상적인 단계의 속도 등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록스의 독립형의 컬러 복사기 카피센터 C40, 워크센터 프로 40, 복사·인쇄·스캔·팩스 기능이 있는 최신 다기능 컬러 시스템들은 강한 인쇄 능력은 물론, 컬러와 흑백 인쇄에 대한 요구를 제공하는 능력에 맞춰 선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큐컬러12복사기/프린터와 다큐컬러3535 다기능 시스템도 '편집자 선택상'을 받았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무실, 그래픽 디자인 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 환경에 대응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5개의 연속적인 '편집자 선택 상'을 수상한 다큐컬러12는 훌륭한 이미지 품질과 잘 디자인된 고객 교환 유닛 시스템을 위해 고안됐다. 게다가 사용자들이 토너와 드럼 카트리지와 같은 부속품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린텍 HP 인디고 대리점 계약 체결

일본의 린텍은 최근 휴렛팩커드와 디지털 오프셋인쇄기의 자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으로 인해 린텍은 4월1일부터 라벨인쇄업계를 주요 타깃으로 HP 인디고 프레스 ws4000을 중심으로 하는 'HP 인디고 프레스시리즈'의 판매 및 보수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아날로그 인쇄기와 비교해 공정의 대폭적인 생략과 온디멘드인쇄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인쇄기 시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착실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

타워 매엽/윤전 응용 위한 CTP 세척기 소개

미국 펜실베니아주 이스톤 소재의 타워프로덕트는 CTP용 특수 형상화 혁신 플레이트 세척기 '그레이트 플레이트 디지털'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비 감광, 비 산성 세척제로서 매엽 프린터뿐만 아니라 윤전용에도 사용될 수 있는 'on the fly'이다.

독특하게 세척 기술을 활성화하는 '그레이트 플레이트 디지털'은 플레이트 이미지 영역에 어떠한 손상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판재를 세척하고 보존한다. 이 제품은 액체로서 사용이 간편하고 구성품의 어떠한 손상이나 마모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레이트 플레이트 디지털'은 코닥풀리크롬그래픽스의 서멀 골드, 스워드 엑셀, 스워드, 일렉트라 엑셀과 후지그래픽시스템의 LHNI, LPNV, LHP1 등의 CTP 플레이트에 대한 적합성 시험을 거쳤다.

와이드포맷 잉크젯프린터 교정작업에 공헌

CAP벤처에 의해 조사된 2004년 연구보고서는 잉크젯이 디지털 교정 분야 최고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이드포맷 잉크젯과 내로우포맷 잉크젯프린터들은 조사 회사들 중 57%에서 리딩 디지털 교정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의 잉크젯 장치는 비용, 기능, 속도의 측면에서 점차 인기를 더해간다. CAP벤처의 이 연구보고서는 디지털 교정 시장에서 디지털 교정 시장과 교정 응용 분야에서 성장, 침투하는 라지-포맷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검사 기회

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와 공급용 시장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CAP벤처는 '디지털 아웃풋 매거진'과 협력, 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아웃풋' 구독자들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CAP벤처의 팀 그린(Tim Greene) 대외협력 이사는 "이 연구보고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디지털 교정 시장이 현재 라아지-포맷 디지털 프린팅 기술로 변천하고 있는 것이다"며 "이것은 이 영역에 참가하기 위한 기회로서 라아지-포맷 하드웨어와 공급자에게 제공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디지털 프린팅 기술들이 현재 교정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온라인 또는 '소프트 프루핑'의 인기도 점점 더 높아진다는 평가다.

돗판인쇄 니폰타바코산업의 인쇄 자회사 인수

일본의 돗판(凸版)인쇄는 최근 니폰타바코 산업의 인쇄사업관련 자회사 3사의 주식 전액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도일은 오는 4월1일이며 돗판인쇄는 니폰타바코산업으로부터 관련 자회사에 관한 생산설비, 관련된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니폰타바코산업은 오랜 동안 담배 포장재 인쇄와 더불어 캘린더, 팜플렛 등의 상업인쇄부문도 운영해 왔지만 지난 2003년 8월에 책정된 중기경영계획의 방침에 따라 중핵사업으로의 경영자원 집중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인쇄사업부문 및 관련 자회사의 거취를 검토해 왔었다.

한편 돗판인쇄에서는 포장인쇄 중에서도 지기부문은 국내에서 수요확대를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생산공장을 포함한 사업구조의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었다.

돗판인쇄는 이번에 니폰타바코산업으로부터 인쇄 자회사 3사의 양도를 받음으로써 작업량을 확보하면서 지기사업을 재구축, 사업 전체의 수익구조 개선을 꾀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그룹 외의 기업에 위탁해 왔던 작업을 그룹 내의 경영 자원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제록스

다큐테크 재구성 계획

제록스는 최근 다큐테크(DocuTech) 제품을 재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록스는 다큐테크 신규 모델 중 분당 100매를 생산할 수 있는 다큐테크 100(7만7천달러)과 분당 120매를 생산할 수 있는 다큐테크 120(9만9천달러)의 두 모델을 먼저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두 개의 신제품은 이전의 다큐테크 제품보다 독립적인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며 생산과 서비스 이용이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성도 훨씬 높다.

우선적으로 출시되는 이 제품들은 스캐너를 내장했으며 복사기/프린터의 기능이 있는 복합기라고 할 수 있다. 스캐너는 그것 스스로 흥미 있는 장치인데 한 번에 종이 양면을 모두 스캔할 수 있다. 단순모드에서도 최대 속도가 분당 120매에 이르며 해상도는 퍼셀 당 10비트, 600dpi이다. 게다가 페이저 8400(10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분당 24매를 솔리드-잉크로 인쇄), 페이저 4500(979달러로서 분당 36매를 흑백 레이저로 인쇄), 페이저 7750(5999달러로 분당 35매를 컬러 레이저로 인쇄) 등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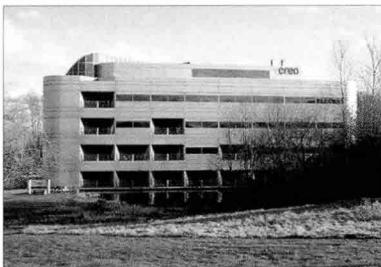
고스

드루파2004 참여이슈 발표

미국 일리노이주 볼링브룩 소재의 고스인터내셔널은 인쇄분야에서 점차 중요성이 강화되는 개념을 담아 드루파2004에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아래 제품들을 출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스의 부스는 홀17번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고스는 디지털 잉킹 시스템과 최신 디지털디지털잉커(DigiRail Digital Inker)들에 대한 독자적인 전시를 계획이 담겨 있다. 전시될 주요 제품은 새로운 자동 인쇄 제어 시스템 조절장치, 싱글·더블·트리플 넓이의 프레스 옵션인 완전 범위의 개선된 제품들, 컬러라이너(Colorliner), 글로벌 뉴스라이너(Global Newsliner) 등을 포함한 신문용 인쇄기 등이다.

크레오 1/4분기 실적 전년 동기대비 9% 증가



캐나다에 위치한 프리프레스 토플솔루션 공급업체인 크레오 본사는 지난 2월3일, 2003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회계년도 2004년 1/4분기의 재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4분기의 소득은 1 억5500만 달러로 약 1890억원에 이르며 1년 전인 2003년 1/4분기의 소득에 비해 9% 증 가했고, 지난 4/4분기의 1억5030만 달러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크레오는 9월 범인으로 2004년 1/4분기는 2003년 10 월, 11월, 12월을 지칭)

크레오의 순이익은 1230만 달러이며 희석 주당 24센트를 기록했다. 주가는 작년 1/4분 기의 150만달러, 주당 3센트였으며 이전 분 기에는 240만달러, 주당 5퍼센트를 기록했 다. 2004년 1/4분기 크레오의 순이익은 프린 트카페 소프트웨어 투자 분의 수익인 희석주

인 주당 17센트를 포함한 금액이다.

1/4분기 말 현금수익은 6990만달러, 한화로 830억8천만 원에 달하며 이전 분기의 5900만 달러에 비해 1천만 달러 이상이 증가 했다. 수익은 2004년 자산 매각 시 발생한 소 득과 2004년 1/4분기에 프린트카페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으로 발생하여 2210만 달러 이며 이중 일부는 판 제조설비인 First Graphics(Pty) 매입과 HiT인터넷 테크놀로지 SpA의 지적자산인 소프트웨어 매수로 차감 되었으며 잔여분은 세닉소프트사 인수에 지 불되었다.

KPG 판재 제조시설 ISO9001 재획득

미국의 코닥풀리크롬그래픽스(KPG)는 최근 조지아주 콜럼버스 지역의 공장 및 콜로라도주 원저 지역의 판재 생산 시설이 ISO9001 인증을 재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두 공장은 북부와 남부 아메리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면 및 컨벤션용 인쇄용 판재를 제조하고 있다. ISO는 2000년에 인증을 결정한 품질 관리 시스템 부분에 대한 규격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 새 규격은 KPG 제조 시설의 우선적인 목표의 하나인 예방 행동과 지속적인 향상, 효과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품질 시스템에 대한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KPG의 제조 생산 공급 담당 선임 협력 부 사장 존 S. 로빈슨은 "새로운 ISO9001인증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고객들에게 품질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 우리 판재들과 판재 시스템들은 가능한 가장 좋은 품 질로 제조된다"며 "인증 획득은 우리 직원들이 혁신한 결과로서 KPG 플레이트가 가장 지속적이면서도 정확한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가 된다"고 말했다.

일본전기 · 크레오 신문용 CTP 고속화시켜

일본전기엔지니어링과 크레오는 2003년 2 월에 발매한 고속 신문용 CTP 'AMZISetter' 를 최근 생산을 높여 2W1L 사이즈의 처리속 도를 약 10% 고속화해 1시간당 100판을 처리할 수 있는 'AMZISetter-F'를 제품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제판 인쇄규모에 맞춘 처리속 도를 실현한 3제품을 새롭게 추가해 AMZISetter시리즈로서 판매를 개시했으며, 출하는 6월 예정이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

고품격 디지털 인쇄 기술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귀사와 함께합니다.

Mako 4 CTP



- ◎ 최대 노광폭 : 645mm x 927mm
- ◎ 해상도 & 속도
7개의 해상도 선택 가능
(1200dpi~3556dpi)
2540dpi ~ 20판
- ◎ Harlequin ECRM RIP V6.0
(Postscript Level 3)
- ◎ 온라인 프로세스
- ◎ 매체종류 : 바이올렛 메탈 플레이트
- ◎ 교정용 출력 동시 가능
- ◎ 수동 또는 온라인 혼상기 선택
- ◎ 잔 고장이 없는 손쉬운 사용자 관리 및 애프터 서비스



토탈컴텍(주) 서울특별시 종구 총무로 3가 49번지 지산빌딩 519호 전화: 02)2285-4550,4551 팩스: 02)2285-4552
URL: <http://www.totalcomtech.com> Email: totalcomtech@korea.com